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k.net

## 주일오전설교 주 안에서의 특권들

[빌 4:4]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참으로 복된 특권이다. 슬픔이 많은 세상에서 누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 안에서’라는 말에 있다. ‘주 안에서’라는 말씀은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그 안에 포함된 모든 은택들을 가리킨다. 주께서는 우리의 근본적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러므로 죄의 결과들인 그 외의 모든 문제들은 주 안에서 이미 다 해결된 것과 같다.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기쁨의 충만함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롬 14:17), 지금 이 슬픔 많은 세상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복을 누리는 것이다. 기쁨은 성령께서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서 일하셔서 맺게 하시는 복된 열매이다(갈 5:22).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라는 원어(토 에피에이케스)는 ‘온유함, 친절함, 너그러움 등’의 뜻이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하고 친절하고 너그럽게 대할 수 있겠는가?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대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자기와 친하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부족한 자들에게도, 심지어 자기를 미워하고 비난하는 자들에게도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온유함과 친절함과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 한다.

성도가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친절하고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까닭은 주께서 오시면 모든 일을 다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선악간에 보응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말씀이 그런 뜻을 담고 있다.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려 오실 주 예수께서는 가까이와 계신다. 주의 재림은 심히 가깝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판단을 그에게 맡기고 오직 모든 사람에게 온유

하고 친절하고 너그럽게 대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만 알고 이 세상의 것들만 구하는 자들이라면 모르지만, 우리가 장차 오는 천국을 알고 천국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구하는 참 성도라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관용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큰 은혜 받은 것을 잊지 말고 다른 이들에게 온유하고 친절하고 너그럽게 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하고 걱정할 일들이 많다. 학생들은 학교 성적 문제나 진학의 염려, 친구들에게 따돌림 받거나 구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청년들은 취직의 염려와 결혼과 출산의 염려, 장년들은 직장과 사업 등의 경제 문제와 건강 문제와 자녀에 대한 염려, 노년들은 자녀들의 평안, 자신의 건강, 노후의 경제적 대책, 외로움, 임종 준비 등 많은 염려거리들이 있다. 인생은 염려가 많은 삶이며 이 세상은 염려가 많은 세상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명하셨다. 실상, 우리의 염려거리들 중에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염려는 우리의 기쁨과 평안과 생활의 활기를 빼앗아 갈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좋다. 그것이 믿음이며 순종이다. 염려하지 않는 생활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특권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또한 하나님께서 보장하실 것이다.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주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마 6:25). 그는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로 예를 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만물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자기 백성의 의식주의 문제

를 돌아보지 않으시겠느냐고 교훈하셨고, 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다(마 6:31-33).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무슨 일을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쳤다. 우리가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그가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고 우리를 위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심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처지에서든, 어떤 어려운 문제를 직면했을 때라도 염려하거나 당황하고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을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큰 일도, 작은 일도, 정신적인 일도, 육체적, 물질적인 일도, 개인적인 일도, 가정적인 일도, 교회적인 일도, 국가적인 일도 무슨 일이든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이다. 믿음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되 ‘감사함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 감사함이야말로 믿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 자가 아니고서는 결코 범사에 감사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감사할 수 있다. 바울은 로마서 8:28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했고, 또 로마서 8:32에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소원들을 하나님께 낱알이 아될 수 있고 또 그의 응답하심을 얻는다.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해력, 지식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금방 오지 않

는 경우도 많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를 경우가 많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를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기도가 금방 응답될 때도 있으나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무지하고 조급한 우리는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치 말고 기도하며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의 현실을 피하고 싶어하고 건강이나 물질적 풍요를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건강이나 물질적 풍요는 복이기도 하지만 때때로 화이기도 하다. 실상, 참된 복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기고 죄 짓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로 경건하고 거룩하고 바르고 선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고난이나 질병이나 가난의 경험은 하나님의 미움이 아니고 그의 사랑의 증거이며,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고 오히려 그의 복이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의 현실을 믿음과 평안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의 일차적인 응답은 마음과 생각의 평안이다. 마음과 생각의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즉각적이고 매우 귀한 응답이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표현은 ‘모든 이해력과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뜻이다.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없으리라고 생각되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이해력과 지식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씀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평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그를 믿고 순종하는 자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기도 응답과 그 응답으로서의 마음과 생각의 평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성도의 특권이다.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현재와 내세의 모든 삶을 보장한다. 그것은 내세의 천국과 부활과 영생뿐 아니라, 현재의 마음의 평안과 건강과 의식주의 공급을 보장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우리와 함께하신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본문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세 가지 특권을 교훈한다. 첫째로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한다. 항상 기뻐하는 삶은 오직 주 안에서만 가능하고 세상적인 조건으로는 불

가능하다. 주 안에서 죄사함 받고 주 안에 거하고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성도들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

둘째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친절함과 관용을 나타내어야 한다. 이것은 주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가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상과 벌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하는 중에 기도함으로 평안을 누리야 한다.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특권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삶이다. 성도들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안은 기도 응답의 시작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성도들에게 주신 기쁨과 관용과 평안의 삶을 누리야 한다.

**주일오후설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주신 교훈

[7-8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이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아니하였음이라].

본문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목사에게 보낸 편지이다. 주께서는 자신을 거룩하고 진실하다고 말씀하시며 또 다윗의 열쇠로 문 곧 천국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신다. 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요 14:6).

주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목사에게 열린 문을 주셨다. 그것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이다. 열린 문은 천국의 확실한 보장을 가리킨다.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代贖)을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위해 천국 문을 여신다. 주께서는 그들의 구원을 보장하신다. 그는 요한복음에서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요 10:28).

주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목사에게 열린 문을 주신 이유는, 그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의 말씀을 지키며 그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열린 문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인간 편에서 볼 때

그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목사는 큰 재능을 가진 자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 목사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켰고 주의 이름을 부인치 않았다. 그리고 그 대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열린 문, 곧 천국의 확실한 보장이었다.

우리는 힘과 재능이 없다고 핑계치 말아야 한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재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래서 두렵고 떨릴지라도, 힘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거나 부인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신앙의 순결과 절개를 지켜야 한다. 그것은 온전한 말씀 순종의 삶을 말한다.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살고, 세속의 죄악된 풍조에 물들지 않고, 할 수 있는 대로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작은 힘으로도 주를 진실하게 믿고 따라야 한다.

[9절] 보라, 사탄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주께서는 유대인들의 모임을 사탄의 회라고 부르셨다. 구약교회인 유대인들의 모임은 부패되고 타락하여 사탄의 모임이 되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였고 신약교회를 핍박하였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2:15-16에서,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하였다. 타락한 종교는 세상보다 더 악한 것 같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 유대인들 중에 몇 사람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목사 앞에 굴복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것은 그 신실한 목사에게 내리시는 보상과 같았다. 주께서는 이 일을 통해 자신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목사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하실 것이다.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살아계심과 그들을 사랑하시고 위하심을 종종 현실 속에서 이렇게 나타내신다.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주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목사에게 한 가지 더 복된 약속을 주셨다. 그것은 주께서 친히 그를 지키어

장차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다. 그 시험의 때는 대환난의 때를 가리키는 것 같다. 물론 그것은 그 목사가 대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하늘로 올리우는 것을 뜻하지 않을 것이다. 성경은 모든 성도들이 대환난을 겪을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4:29,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요한계시록 7:14,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 목사를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시험과 환난의 때를 면하는 은혜가 예비되어 있었다. 그것은 옛날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했던 고센 땅이 그 재앙을 받지 않았던 것과 같은 은혜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대환난 중에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11절]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께서는 단지 한 가지를 그에게 요구하셨다. 그것은 그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는 것이다. 그것은 바른 신앙의 보수를 의미한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역사적 기독교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을 굳게 믿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장차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일이 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범 죄하고 회개치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장차 받을 그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길 것이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에게 예비된 천국과 영생을 빼앗으려 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주께로부터 받은 성경말씀 안에 굳게 서고 유일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의 복음을 굳게 믿어야 한다.

**[12-13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 . .**

이기는 자는 참된 성도를 가리킨다.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엡 2:21-22). 또 그들은 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꼭 필요한 기둥 같은 인물이 된다는 뜻일 것이다. 또 주께서는 이기는 자들에게 세 가지의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의 새 이름을 주겠다고 약속하신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새 예루살렘 성의 백성이며 주 예수님의 소유된 자들임을 확증하신다는 뜻이다. 요한계시록의 교훈은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듣고 실천해야 할 말씀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을 믿고 굳게 지키고 인내하며 배반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가진 능력이 크든 작든지, 우리는 주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목사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부인치 않았다. 오늘날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로부터 전달받은 역사적 기독교 신앙, 즉 중세시대에 로마 천주교회가 잃어버렸다가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영적 어둠에서 다시 발견한 이신칭의(以信稱義)의 복음 진리를 잘 이해하고 믿고 그 복음 신앙, 속죄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실천해야 한다. 그 역사적 기독교가 옛신앙이다. 우리는 그 신앙을 지켜야 한다. 온 세상에 마지막 대환난이 올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기 백성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며 환난과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든지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우리는 오직 성경적, 역사적 기독교를 굳게 믿고 성경 교훈을 행해야 한다.

### 수요일 설교

### 격려와 약속

[학 2:1-23] 7월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 . .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주께서 명하시고 맡기신 전도와 교회 건립의 선한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담대히 일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작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비록 그것이 보잘것없이 시작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하신다. 그는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神性)의 영광을 보며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 솔로몬의 성전은 금은 보화로 건립된, 외형적으로 영광스런 집이었다. 거기에 비하면 스룹바벨이 짓고 있는 성전은 보잘것없어 보였다. 그러나 이 성전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집이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오실 것이다. 성전은 그를 예표했다. 신약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영광을 보았고 믿었고 온 세계 만민에게 증거한다.

셋째로,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죄 가운데 살 때의 형편과 구원받은 후의 형편을 비교하며 특히 하나님의 모든 복과 평안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죄씻음을 받았고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과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 백성의 특권을 얻었고 평안을 얻었고 또 기도의 응답을 얻는다.